

I want this Christmas morning to consider the story of the annunciation – the angelic announcement to Mary that she would give birth to the Messiah, the Christ. I want particularly to examine closely Mary's response to the message of the angel, Gabriel, for in some ways Mary is like us. At this point Mary has not met the earthly person of Christ, and neither have we. But she receives a message about him. It is basically the gospel message, describing who Jesus is and what he will do. And Mary responds in a wonderful, moving way. In her shining example, we get an insight into how we should respond to Jesus, the Son of God who took on human flesh to live among us, suffer alongside us and above all die for us.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에 성스러운 예수님의 잉태 - 천사들이 마리아가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세지에 마리아가,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때 마리아는 아직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신 것을 보지 못한 상태였으며 우리도 아직 그러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복음의 메세지입니다. 마리아는 이 메세지에 감격스럽게 반응합니다. 마리아의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What do we learn from the angel about who Jesus is? Gabriel calls him "The Son of the Most High". Now, sometimes in ancient languages you could be called a son of someone if you resembled or believed strongly in that person. But this title means much more than that Jesus, the baby Mary would bear, was simply a follower of God. Because the angel adds,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Forever? And then – perhaps because he knows that Mary can't believe her ears – he makes the same statement in another way – "His kingdom will never end." The angel is saying, "I really do mean forever". So there is a promise that this child who is about to be born will not just be a mere political king, but will have a kingdom that will last forever. Indeed, the strong implication is that he is more than a mortal human being.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고대 언어에서는 누군가가 큰 신망이 있거나 한 사람을 많이 닮았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호칭, 마리아의 아기가 가지게 될 호칭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라고요? 그러고 나서 - 아마도 천사는 마리아가 귀를 의심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 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그의 왕국이 끝나지 않으리라." 천사는 "정말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곧 태어날 아기는 그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실 왕국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죽어야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The angel continues,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What a fascinating, mysterious statement. It will overshadow you so that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Now we are being told that this supernatural, eternal being will come into the world through a miraculous birth. And he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 not merely because his character will bear a strong resemblance to God's, but because the very divine nature of God is going to be implanted in Mary in physical form. And therefore the one to be born will be perfectly holy, absolutely sinless, and will live forever as a both divine and human person. What an utterly astounding statement! This is what we call the Incarnation – that God became incarnate when the Son of God assumed a human nature and was born, in the flesh, into the world.

천사는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비하고도 멋지게 들리는 말입니까.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우리는 초현실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이땅에 신비한 출생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리우실 것이며-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그 자체가 마리아의 육체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실 분은 완벽하게도 거룩하시며,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육을 두가지 모두 가지신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특징을 가지신 채 육으로, 이 세상에, 나신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A second thing we learn about him is that he is to be named "Jesus", which means "God who saves". A more appropriate name could not be imagined. Every founder of every other religion is a human being who is a guide to show us the way of salvation. None of them would ever claim to be God or even a saviour. But the Bible says clearly that Jesus is the way of salvation – living the life you should live and even dying the death you should die for your sins. So in the very name of this child we see the uniqueness of Christianity in general and of Jesus in particular.

두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것은 이 아기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적당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구원을 받게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인간입니다. 이 들 중 아무도 하나님이라거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죄 때문에 죽어야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기의 이름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특징과 특히 예수님 안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Indeed, on nearly every page, the New Testament makes claims about Jesus that no other religion would ever make about anyone. They are so prevalent we may not even notice them. For example, notice what Elizabeth says to Mary in v. 45. She says Mary is blessed if she believes "what the Lord has said to her" when he sent the angel to speak to her. But immediately before that, in v. 43, she addresses Mary as "the mother of my Lord". Now that's amazing, isn't it? How can Mary's unborn (indeed, as yet unconceived!) child be the Lord who sent her the message about the unborn child? Remember that Elizabeth is prophesying here und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is highly unlikely she understands the meaning of all she is saying. But the implication is clear – the baby who is about to be born is the eternal Lord God who sent her the message. It is a shocking, striking claim. 그렇습니다, 매 장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다른 종교도 누군가에게 감히 부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특징지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것들이라 특별히 관심을 쏟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5 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에 43 절에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마리아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임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그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관해 메세지를 마리아에게 보낸 주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십시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암시하는 바는 극명합니다- 이 태어날 아기는 자신에게 아이에 관한 메세지를 보내신 영원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주장입니다.

The Hebrew idea of God wa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cultures. When the Bible speaks of Jesus as divine, that does not mean that he has more of the divine spark of life that is found in everyone. To the Hebrews, God was not an impersonal force that is part of all being but a unique, personal yet infinite, immanent yet transcendent, eternal Creator who existed before and above all other beings. So to call Jesus divine was a stupendous claim. Yet it is the lynchpin of Jesus' own understanding of himself and underlies everything he teaches. So you either have to say that Jesus Christ is, as the Bible claims, the unique Creator God who has come in the flesh, which makes Christianity a better

revelation of God than other religions – or you have to say that he was wrong or lying, which makes him and his followers a worse revelation of God. Every religion, even those that appear more inclusive, makes its own unique claim. But Jesus' claims are particularly unnerving, because if they are true, there is no alternative but to bow the knee to him. The annunciation pushes the exclusivity of Jesus right in our face.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다른 문화에서 가지는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생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담으신 신성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모든 존재에 있는 비 인격적인 에너지(force)가 아니라 유일하시면서도 인격적이고 무한하시면서도 모든 곳에 존재하시면서 초월하시는, 창세전에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이 있다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예수님 스스로를 이해하는 정체성의 핵심이었으며 그가 가르치셨던 모든 것에 근간을 이루었던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은 두가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으로 오신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며,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거나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중 가장 포용적인 종교라 할지라도, 독특한 주장들을 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장은 특히 대담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대안은 없으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배타성을 우리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annunciation was a shock to Mary as much for social reasons as theological ones. At the time, Mary was probably about 15 years old, and very poor. The offering given for Jesus' circumcision ceremony in the temple – two birds – was that offered by the really poor families (Luke 2: 22-24). Mary is a peasant, and on top of that, she will face disgrace over this news. And yet this disgraced, pregnant, unwed peasant girl is today one of the most famous human being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hy? What makes her great? It is how she responds to God and his message. She does 4 things. Let's consider each in turn.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마리아에게 사회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로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 마리아는 15 살 정도였을 것이며, 아주 가난 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 당시 정결 예식에서 드린 것은 - 두마리 새 - 아주 가난한 가족들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2-24). 마리아는 소작농이었으며, 게다가, 아기를 가진 소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당할 수도 있는, 임신한,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이 여자아이는 오늘날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세지에 반응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First, she thinks. She uses her powers of reason. The word translated “wondered” in v. 29 – “Mary was greatly troubled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 is from a Greek word meaning “to use logic, to reason with intensity”. It means that Mary was trying to figure out how it could all be true. This might seem strange to us. Today we like to say that we are rational and scientific people – we ask hard questions, use logic, and demand empirical evidence – and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us to believe in the appearance of an angel. The implication is that ancient people were superstitious and had no problem believing in the supernatural. But that is not so – we see here Mary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believe what she was hearing.

첫째로,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성을 동원합니다. "생각하매"라고 번역된 29 절의 단어는 -"처녀가 그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헬라어의 "논리를 동원해서 깊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려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고, 논리를 사용하며, 실증적인 증거를 요약합니다 - 그러므로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대 사람들은 미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Why? Mary was Jewish. This news certainly did not fit in with what Mary knew – because the message meant that a human being would be divine. The idea that the God of Mount Sinai would become human was impossible to the reason and repugnant to the moral sensibility of the Jews. Indeed, there is no place in the world, and there has never been a period of history, where there are not enormous barriers to believing the proclamation that the Creator God of the universe is coming into a girl’s womb to be born as a human being through her. So the annunciation takes on all cultural narratives and demands hard thinking. And Mary does not shirk it. She ponders the evidence, weighs the claims and concludes that it is true. So, too, we must be willing to use our reason to weigh the Christian message.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리아가 알던 것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이 소식은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유대인의 도덕적 이치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불쾌하게까지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계 어느 곳이든지 역사상 어떤 때를 막론하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여자아이의 자궁으로 오신다는 선언을 못 믿게 하려는 거대한 장벽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모든 문화적인 이야기와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니다.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천사의 주장을 따져본 뒤 이것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 Secondly, Mary expresses her doubts openly.

She says to the angel,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She asks the question any rational person would ask: “How can I have a child if I’m not having sex?” This shows a willingness to be honest about her uncertainties and questions – and with an angel! Honest doubts are humble, because they lead you to ask questions, not just put up a wall. Mary’s question to Gabriel actually asks for information and leaves her open to the possibility of a good answer that would cause her to shift her views. Honest doubts are open to belief. If you are really asking for information and good arguments, you might get some.

두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물을만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것은 불확실함과 의문을 갖는다는 것을 (- 천사에게요!) 정직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직한 의문들은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벽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에게 한 마리아의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했던 것이며 이것은 자신의 관점을 바꾸도록 한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기회입니다. 정직한 의심은 믿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하게 알고 싶어하며 유익한 토론을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And because Mary expressed her doubt, the angel is moved to say,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v. 37). All kinds of people down through the centuries have been helped so much by those words. And the only reason we get this extra revelation is because Mary doubted. I have seen plenty of people who refuse to ask questions and refuse to express their doubts. Some refuse out of hard-heartedness, while others refuse because they think somehow it is disrespectful. Please make an effort to raise your honest doubts and questions. They are helpful!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의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천사는 감동받아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 절). 모든 류의 사람들이 몇세기에 걸쳐 이 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받게 된 이유는 마리아가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문하기를 거부하고 의심을 표현하기 싫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굳어진 마음때문에 그러했고 반대로 다른 분들은 이것이 예의가 없을까봐 질문을 못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정직한 의심과 질문들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도움이 됩니다!

Thirdly, Mary surrenders completely. You see,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is a good argument. Do you believe in God, Mary? Yes. Well, if there is a God who created the world, who delivered your people from slavery and protected them for centuries, why couldn't he do this? And that made sense to her. And so Mary says, "I am the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v. 38). Sometimes people say, "I would like to be a Christian, but does that mean I will have to give up doing some things and start doing others?" "Will I have to read my Bible every day, pray, give up sex, give up some of my friends, change my views?" And there is some legitimacy in those questions because you need to consider what it will cost you to become a Christian. Jesus himself tells us to "count the cost" of discipleship (Luke 14: 25-33). The problem is that many people want to negotiate the cost rather than count it. That is, they are willing to give up things, but they won't give up the right to determine what those things are. When God came to Abraham he said, "Abraham, get out of your homeland, out of the land of the Chaldeans, and follow me". Abraham says, "Where am I going?" and God essentially says, "I'll show you later". God wants Abraham to give up the right to determine for himself the best way for him to live.

셋째로, 마리아는 완전히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마리아? 네. 만약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민족을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시며 몇세기 동안 이들을 보호해 오셨다면, 이번일은 왜 못하시겠어? 마리아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38 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포기하고 다른 일들을 해야만 하지 않나요?"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섹스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희생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저희에게 제자도의 "포기해야하는 희생에 대해 따져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25-33).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져보기보다 이러한 희생을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희생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인, 갈데아 땅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이 "제가 어디로 가야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In some fashion you have to say what Mary said when you give your life to Christ. In your heart you must say something like this: "I do not know all that you are going to ask of me, Lord. But I'll do whatever you say in your Word, whether I like it or not, and I will accept patiently whatever you send into my life, whether I understand it or not." You can't know the cost of following Jesus ahead of time. So you must simply say, "I do not know all that is going to come, but one thing I know – I give up the right to decide whether or not I will do God's will. I will do it unconditionally".

어느정도는 마리아가 대답했던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 해야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던지 아닌지, 제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지 인내심을 갖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던지 아니던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좇는데 어떠한 희생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 미래에 벌어질 일은 모르지만, 한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결정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조건없이 순종하겠습니다".

Mary certainly couldn't know all that it would cost, though she must have had some idea. And so, eventually did Joseph. When Joseph discovered Mary was pregnant, and he knew that he was not the father, he decided to break off the engagement. But an angel appeared and gave Joseph his own message from God – he was to marry her anyway and give the baby the name Jesus. Now, Joseph knew that if he married her, then everybody in their small town of Nazareth, in their shame-and-honour society, would know that the child had been conceived out of wedlock. They knew how to read a calendar. Sooner or later, everyone would know that either they had sex before marriage or she was unfaithful to him, and in either case they would have violated the moral and social norms of that culture. They and their children would be shunned by some, always suspected by everyone else.

마리아는 이것이 어떠한 일을 초래할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줄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가 마리아와 결혼할 경우,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동네에서 이 아이가 결혼 전에 생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달력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혼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성관계를 했던지, 마리아가 요셉에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지만, 두가지 일 모두 그 문화에서 중요히 여기는 도덕적, 사회적 실수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이 피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So what did it mean for Joseph and Mary to accept the Word of the Lord, to say, "We embrace the call to receive this child. We will accept whatever comes with it"? The answer is courage – and a willingness to do God's will, no matter what. There are many places in the world now where, if you are a professing Christian, you are going to be walking in Joseph and Mary's shoes. Indeed, Christian belief sounds just as incredible and implausible to many friends and family in Melbourne or Sydney or Seoul or Busan as the angels' story sounded to Mary and Joseph's friends. If you are open about your Christian faith in whatever social circles or work environment or educational setting you are in, a lot of people won't understand, and you won't be able to make them understand why you are the way you are. In many cases your reputation may suffer.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 이 아이를 받도록 하신 소명에 기뻐하며, 이 일로 인해 무슨일이 일어나든지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하는 의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세상에는 현재, 그리스도인임을 공표하였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멜번이나, 시드니,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는 믿지 못할만하고 기겁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마리아와 요셉의 친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해 공공연히 말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고 왜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지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명예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And yet, why do you think Jesus Christ came into this world through a pregnant, unwed teenage girl in patriarchal shame-and-honour culture? God didn't have to do it that way. But I think it was his way of saying, "I don't do things the way the world expects, but in the opposite way altogethe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My Saviour-Prince will be born not into a cradle in a royal

palace but into a feed trough in a stable – not to powerful and famous people but to disgraced peasants. That is all part of the pattern. For Jesus will win salvation through weaknes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He will achieve power and influence through sacrificial service. And if you have Jesus in your life, you will taste much of the same treatment. But my salvation works like this – suffering leads to glory and death to resurrection. So do not be afraid. Receive Jesus as your Saviour and King and I will be your honour. It doesn't matter what the world thinks." So Mary and Joseph were willing to do for Jesus what Jesus was going to do for them in an even greater and more lasting sense. He became obedient to his Father in heaven, even to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 4-11). And when God called, they gave up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Do you want Jesus to be with you, in your life? Then you have to be prepared to give up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하지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부장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 미혼모의 십대소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 나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방식을 따른다. 나의 전능함은 약함에서 완벽하여진다. 나의 구원자-왕자는 왕궁의 침대에서 날 것이 아니라 마굿간의 구유에서 날 것이며 - 저명하고 권력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소작농을 위해서 이다. 이것이 나의 방식이며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서 권능과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네가 너의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같은 처지를 맞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다 - 고통은 영광을 낳게 될 것이며 죽음은 부활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너의 구원자와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이 더욱더 영원하고 크신 일 줄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4-11).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Finally, Mary does one last thing that can instruct us. She goes to Elizabeth, who speaks to her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must have helped Mary a great deal. It certainly encouraged her – and it might have helped her understand her situation in a new way. For as soon as Elizabeth finishes speaking, Mary breaks into a magnificent song, which we call "The Magnificat". She begins to worship and adore God with all her heart: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ur" (1: 46-47). In her song Mary goes back through the Old Testament – from the Psalms and Isaiah and the prophets – making remarkable connections that reveal the coming of the divine Messiah.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만한 마리아의 행동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성령으로 충만해 말을하고 있는,에게 갑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크게 도왔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마리아에게 용기를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보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말을 마치자마자, 마리아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성모 마리아 송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1:46-47). 이 노래에서 마리아는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 시편으로부터 이사야서 그리고 선지서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절들을 기막히게 잇습니다.

So the fourth thing we need is community. Mary does not appear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until she goes to see another believing sister, who happens to be a relative, and they talk together and worship together. Yes, like Mary you need to think intensely and doubt openly, and eventually surrender completely to God's saving purposes for you in Jesus. But it won't be enough simply to do that as a solitary individual, without trusted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God's family

around you. Some of us don't want people to know we are even having spiritual struggles until after we have gone through them and we can tell people about them in the past tense: "That was a dark time". That is not God's plan and purpose for us – for any of us! We are to grow in our faith together – as we share our joys and struggles and suffering – in the community of God's people, the church. In the end we are never going to make it without community –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그러므로 네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마리아는 또 다른 믿는 자매, 친척이기도 한, 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하기 전까지는 무슨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처럼 여러분은 열심히 생각하고 공공연히 의문을 가지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위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믿을 만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혼자서 하려고 한다면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몇몇은 영적으로 분투하는 것이 지나가고 과거 시제로 "그 때는 정말 어두운 시기였지" 라고 말할수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의 기쁨과 어려운일과 고난-을 나누면서요. 우리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떠나서는 결국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ary gives us a shining example as to how we are to respond to Jesus, the Son of God who took on human flesh, to be our Saviour and King. We are to respond in the humblest possible way – by thinking intently, by expressing our doubts honestly, by surrendering completely and by connecting with God's family, sharing our faith and lif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May the Lord open our hearts, minds and wills to do that at this Christmas season and into the future.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와 왕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예입니다. 우리는 가능한한 가장 겸손한 자세- 열심히 생각해보고, 솔직히 우리의 의문점들을 드러내고, 완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나누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이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Amen